



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SSAD 알 맘자르 훈련장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따끔했던 예방주사, 그래서 더기대되는 키르기스스탄전

내일 새벽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

필리핀전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한국은 키르기스스탄전에서 저력을 발휘할 것인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2일 새벽 1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키르기스스탄과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을 벌인다.

한국은 지난 7일 필리핀과의 1차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앞선 7차례 맞대결에서 36골이나 퍼부었기에 설 틈 없는 특점 행진이 기대됐으나 결과는 진담송이었다. 변수가 많은 첫 경기에서 승점 3을 얻은 것은 분명 수확이지만, 2점으로 여긴

필리핀을 상대로 우승후보 0순위의 체면을 살짝 구긴 것도 사실이다.

당시 한국은 의도대로 대다수 시간을 공격에 할애했다. 그러나 80%가 넘는 높은 점유율에 비해 공격 효율은 크게 떨어졌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돌파는 여의치 않았다. 필리핀은 수세 시 전원 수비로 한국의 공격을 차단했다. 수비에서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좁혀진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91위의 키르기스스탄은 아시안컵 본선 무대가 처음이다. 전력상 한국(53위)에 크게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필리핀처럼 수비에 무게를 둔 뒤 역습으로 한국을

상대할 공산이 큰 이유다.

선수들은 필리핀전 경험이 키르기스스탄을 상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키르기스스탄과 맞붙은 김민재는 "상대가 필리핀처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경험했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우영(알사드)의 생각도 비슷하다. "(필리핀처럼) 전체가 수비를 한다면 뚫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대와 해본 적이 내 기억에 오래 됐다"면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연습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할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르기스스탄전에서는 일부 포지션의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뉴캐슬)이 뛸 수 없다. 기성용은 필리핀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1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 황인범(대전)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오른 엄지 발가락이 좋지 않아 9일 훈련을 건너뛴 이재성(울산U21)은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재성이 뛸 수 없다면 필리핀전 후반 투입돼 베테랑의 품격을 뽐낸 이정용(보통)이나 극적으로 최종 엔트리에 승선한 이승우(베르나)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1차전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홍철(수원)은 부상을 털고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심석희, 훈련돌입...관심 피해 태릉 대신 진천으로

조재범(38) 전 코치의 성폭행을 폭로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심석희(22·한국체대)가 대표팀에 합류, 훈련에 돌입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0일 "심석희 선수가 오늘 오후부터 대표팀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은 태릉선수촌 실내빙상장에서 5, 6차 월드컵 대비 강화훈련을 해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당초 12일까지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다가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훈련을 비공개로 바꾸고 일정도 앞당겼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최근 사건으로 과도한 관심을 받을 경우 심석희와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오늘부터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해 대표팀 강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범호 수성? 젊은 주인?...KIA, 3루가 뜨겁다

KIA 타이거즈의 2019 목표는 자존심 회복이다.

2017시즌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차지했으나 2018시즌은 5위 딱걸이했다. 승률이 5월에 미치지 못했다. 디펜딩 챔피언 체면을 세웠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2019시즌에는 다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도약과 더불어 야수진의 세대 교체 여부도 관심이다. 내년 KIA 주전타선에 30대 중후반 선수들이 즐비해 세대 교체기에 올라왔다. 특히 이범호의 3루 수성 여부가 주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범호는 내년이면 38살이다. FA 계약 3년(2+1년)의 마지막 해이다. 이제는 은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시간이 왔다.

올해까지 이범호를 위협할만한 확실한 3루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범호는 2018시즌 101경기에 출전해 380타석을 소화한 주전이다. 성적도 나쁘지 않다. 타율 2할7푼, 20홈런, 69타점을 기록했다. 4년 연속 20홈런을 달성했다. 내년 시즌에는 통산 350홈런에 도전한다. 여전히 3루수 자리는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올해 이범호가 부진 혹은 부상으로 빠졌을 때 3루수로 나선 선수들이 있다. 차세대 주전들인 최원준과 류승현이었다. 최원준은 내외야를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로 이름을 알렸다. 101경기



(왼쪽부터) 이범호, 최원준, 황대인

에 출전해 2할7푼2리, 4홈런, 32타점을 기록했다. 내야는 유격수 3루수에 2루수까지 나섰다.

향후 팀내 사정을 감안한다면 최원준의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은 유격수이다. 그러나 주전 김신민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 최원준은 2루수와 3루수 대안으로도 꼽힌다. 특히 내년 시즌 이범호의 뒤를 잇는 3루수 가능성도 있다. 류승현도 올해 보여준 타율 3할7리의 타격을 감안한다면 3루수 후보군에 있다.

또 한 명의 젊은거포 황대인이 있다. 삼무시절 3루수로 많이 출전해 수비력을 키웠다. 장타 생산 능력이 출중하고 근복무투 첫 시즌이라 자신감도 넘친다. 그러나

내년 시즌 자신의 포지션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스프링캠프부터 확실한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3루수 출전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비력이다. 세 선수 모두 이범호에게 수비력에서 뒤진다. 이범호는 좌우 수비력이 좁아졌고 순간 대응력이 많이 낮아졌다. 그러나 감각적인 포구와 정확한 송구력으로 약점을 메우고 있다. 세 명의 젊은 선수들이 이범호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타격과 수비력까지 입증해야 한다.

이범호가 이상을 지킬까? 아니면 젊은 새 주인이 들어설까? 2019 KIA의 3루는 실제로 핫코너가 될 전망이다.

백승호 "스페인 무대 1군 공식 경기 데뷔 정말 기쁘다"

한국선수 사상 6번째... "더 겸손하게 나아갈 것"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백승호(지로나 FC)가 1군 무대에 데뷔한 소감을 밝혔다.

백승호는 10일(한국시간) 스페인 지로나의 에스타디 몬탈리비 경기장에서 열린 2018~2019 스페인 코파 델 레이(FA컵) 16강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홈경기에 선발 출장, 후반 22분까지 67분을 소화했다.

공격포인트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017년 8월 비르셀로나 B팀에서 지로나로 이적한 이후 처음으로 1군 무대에서 뛰었기 때문이다.



이날 1군 무대 데뷔로 백승호는 이전수(레알 소시에다드) 이호진(라싱 산탄데르) 김영규(알메리아) 박주영(셀타 비고) 이강인(발렌시아)의 뒤를 이어 사상 6번째로 1군 무대를 밟은 한국인이 됐다.

지로나는 한 수 위로 평가받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무승부를 이뤘었다. 승부는 17일 마드리드의 원정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갈린다.

백승호는 경기가 끝난 후 스페인 언론 '문도 데포르티보'와 인터뷰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드디어 꿈을 이뤘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이어 "우리는 좋은 경기를 했다"면서 "축구에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원정에서 모든 것을 쏟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인스타그램에도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공식 경기에 데뷔해 정말로 기쁘다. 팀도 멋진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더 겸손하게 나아갈 것이다"는 글을 올렸다.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